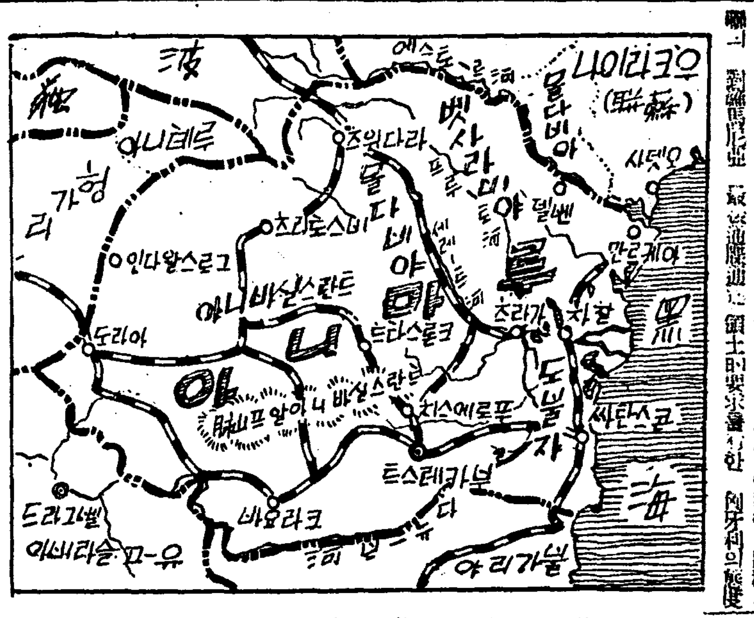
朝鮮日報
第二夕刊
二十八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匈牙利도 羅馬尼亞에 트란실바니아返還要求?

【부다페스트二十七日發同盟】蘇聯의 對羅馬尼亞 最後通牒과 함께 羅馬尼亞에 對한 領土的要求를 行한 匈牙利의 態度는 一般히 注目되던바 聞한바에 依하면 테레키匈牙利首相은 이즘 히틀러總統으로부터 匈牙利의 對羅要求는 貫徹되리라는 뜻의 親書를 接受하였다고 傳한다 右親書內容은 匈牙利現狀에 相當한 變化를 齎來하리라고 보이는데 消息通도 匈牙利政府는 羅馬尼亞政府에 對하여 萬若 蘇聯의 對羅馬尼亞要求가 交戰치안코서 貫徹한다면 直時 羅馬尼亞에 對하여 그領土的要求를 提出할것이라고한다

【부다페스트廿七日發同盟】匈牙利政府는 蘇聯의 對羅要求에 依하여 惹起된 匈牙利 新情勢에 對處코저 廿七日 午後長時間에 亘하여 閣議를 開催하고 愼重한 檢討를 行한後 테레키首相, 차키外相은 伊國公使, 獨國公使를 引見하고 重要協議를 하였다 消息通間에는 匈牙利政府가 羅馬尼亞政府에 對하여 失地回復으로 트란실바니아要求에 關한 或種의 行動에 나올것으로 보고잇다



蘇聯側要求에 伊는不干涉

【羅馬二十七日發同盟】蘇聯政府가 對羅最後通牒을 發한以來 伊太利政府는 此種蘇聯要求에 依하여 東南歐의 平和가 攪亂되어서는 안된다는 確信下에 關心을 가지고 情勢의 推移를 監視하고잇는모양이다 二十七日 파시스트黨側은 羅馬尼亞가 蘇聯의 要求를 受諾하기만하면 獨伊兩國政府는 假令 羅馬尼亞가 그領土를 犧牲하드래도 발칸의 平和는 維持될것이라는 意見이 一致되었다고 傳하므로 伊太利가 이問題에 干涉할理는 업스리라는 見解를 披瀝하였다

佛前首相等 米國에逃亡?

【伯林二十七日發同盟】DNB通信社特派員報道에 依하면 레이노 前佛首相은 西班牙國境官憲에 對하여 米國渡航 西國通過查證下附를 申請하였다 또 만델前內相도 英國船에 搭乘 祖國을 逃亡한바 同船은 出帆後 卽時 擊沈의 慘害를 입엇다고 傳한다

蘇聯側要求審議할 蘇羅會議開催提議
羅政府콤뮤니케를發表

【부카레스트二十七日發同盟】羅馬尼亞政府는 二十七日 最高會議散會後 午後八時 如左한콤뮤니케를 發表하였다

國王카롤二世司會下에 開催된 最高會議는 베사라비아, 부코뷔나北部의 割讓에 關한 蘇聯政府의 要求에 對하여 審議하였다 그結果 羅馬尼亞政府는 蘇聯政府와 友好關係를 維持하기爲하여 蘇聯政府에 對하여 同政府의 要求를 討議키爲하여 蘇羅兩國代表會議開催를 提議하고 會議開催場所及蘇聯代表를 選定해주기를 要請하였다 羅馬尼亞政府는 蘇聯側의 回答을 기다려 二十八日 다시 最高會議를 開催할模樣인바 官邊에서는 蘇羅會議가 實現되는 形式的이요 結局은 蘇聯側의 要求全部를 드러줄수밧게업슬것으로 보고잇다

會商結果보아 蘇軍、베地方에進駐

【부카레스트二十七日發同盟】羅馬尼亞政府는 蘇聯政府에 對하여 베사라비아, 부코뷔나에 對한 進駐는 二十七日까지 延期해달라고 請하고 잇던바 二十七日 羅馬尼亞官邊은 蘇聯政府는 右提議를 受諾하고 兩國間에 細目商議가 成立되고 羅馬尼亞의 屈服條件이 確定될때까지 兩地方에 進駐를 一時中止하기로 同意한것을 非公式으로 言明하였다 蘇羅兩國代表의 會商은 二十八日中에 實現될것이라고말한다

土耳其政府 領海防備强化

【앙카라二十七日發同盟】蘇聯의 對羅馬尼亞要求는 土耳其朝野에 非常한 衝動을 이르키어 同國의 重大關心事가 되어잇는데 政府는 事態의 緊迫에 鑑하여 二十七日 急遽 다다넬스海峽의 沿岸防備를 强化하고저 새로 同國艦隊의 一部를 同方面에 派遣하는 一方 航空隊에 對하여는 海峽上空의 哨戒飛行을 命하여 그監視를 嚴重히 하기로決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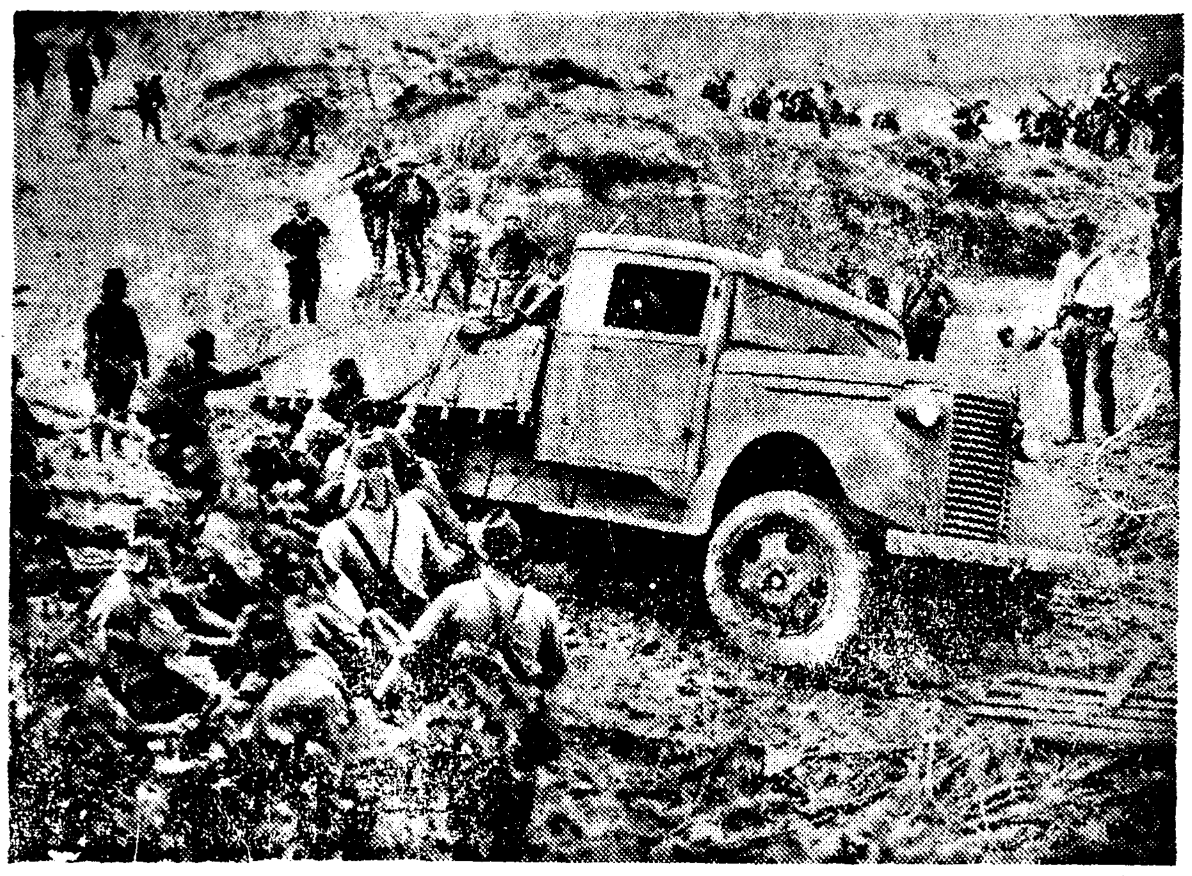
在英米人에 撤退를勸告

【倫敦二十七日發同盟】캐네듸駐英米國大使는 二十七日 英國在留의 全米國人에 對하여 다음과 가치 最後的撤去를 勸告하였다 來七月四日 고르웨이港에 到着할 워싱톤號에 依하여 英本土에서 撤退하도록 勸告한다 同船은 歐洲大戰이 終了되기까지 英米間을 航行하는 最後의 連絡船이므로 此際 卽時 緊急用務를 띄지안는 者는 歸國하여야한다 米政府는 英本土內의 危險區域에 머무르는 米國人을 爲하여 今後 다시 交戰國內의 水域에 船舶及乘組員을 急派하기는 [illegible]

滿洲國皇帝 多摩陵에御參拜
政府主催午餐會에도御臨場

【東京電話同盟】惶悚하옵게도 滿洲國皇帝陛下 今番의 御來訪은 紀元二千六百年御慶祝及 御宮山陵御參拜의 御目的으로 拜承되는바 御滯京第二日인 二十八日은 多摩陵에 御參拜 正午에는 我政府主催午餐會에 御臨場하옵시다 이날아침 陛下께서는 日滿兩國大勳位各勳章을 爲始하여 各種勳章이 빗난 軍裝을 입으시고 本庄侍從武官長 [illegible] 御陪乘하옵시고 御宿所의 赤坂離宮에서 자동차로 靑葉이 新鮮한 陵所에 御着 御修祓, 御手水等이 게시고 第一鳥居까지 自動車로 進御하사 石階를 御登하사 御拜所에서 花輪을 드리옵시며 敬虔하옵게 御參拜하옵시다 [illegible]

▲奉迎午餐會御茶會 滿洲國皇帝陛下께서는 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 永田町 首相官邸에서 政府主催 奉迎午餐會에 御臨席 米內首相이 [illegible]


險路를 무릅스고 進擊하는 ○○部隊(南支戰線)

獨의和平條件提示說 英政府、正式否認
今日、히總統重大意思表示?

【倫敦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 米國方面에서 傳하는 獨逸의 對英和平提案說에 對하여 英國政府는 二十七日午後 라디오를 通하여 如左하게 正式으로 否定하였다 英國政府는 아직 對獨和平招來에 必要한 條件에 關한 見解를 改變하고잇지아니하다 現在 獨逸政府가 그性格을 一變한 兆候도 볼수없고 또 英帝國이 科罰하지안코는 그대로 둘수없다고 [illegible]

바틀러英次官 重光大使와會談

【倫敦二十七日發同盟】바틀러英外務次官은 二十七日正午 日本大使館으로 重光大使를 訪問하고 支那問題를 中心으로한 日英兩國關係의 全般에 亘하여 重要會談을 하였다

팔틱進駐赤軍兵力 리가方面만廿五萬

伊軍、말타島等空襲

【羅馬二十七日發同盟】伊軍司令部發表

一、伊太利空軍은 二十七日 말타島의 交通及諸施設에 甚大한 損害를 주었다

一、北阿弗利加方面도 空襲하여 武器庫 自動車 [illegible]

一、伊太利艦隊는 리비야國境에 接近한 英艦及飛行機를 擊破 多大한 戰果를 거두었다

一、敵空軍은 에리트레아海岸及 紅海入口 앗사브에 來襲하엿스나 直時擊退되었다

佛側參謀本部에 續續兵役志願

【倫敦發】佛蘭西의 對獨媾和에 依하여 英政府는 廿三日 佛國과의 國交斷絶을 宣明하였는바 今後는 專혀 드·고르前國防次官을 中心으로한 佛蘭西臨時政府를 支持하게되엇다 [illegible]

電擊?和平? 獨逸의對英態度注目

【伯林二十七日發同盟】佛蘭西의 屈服으로 一時小康狀態를 보이고잇든 歐洲戰局은 [illegible]

獨逸도蘇聯의 對羅要求默許乎

【伯林廿七日發同盟】蘇聯의 羅馬尼亞에 對한 베사라비아返還要求 [illegible]

米、四萬五千噸級 主力艦建造에着手
루즈벨트大統領、第二次國防豫算에署名

【華盛頓二十七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二十七日 第二次追加國防豫算에 署名하였다 이리하여 米國의 軍備擴充은 드디어 本格化하게되었는데 海軍省은 同日 最初의 四萬五千噸級 主力艦의 建造에 着手하였다

루氏斷然優勢 米大統領選擧豫想

(紐育發) 歐洲戰爭에 關聯하여 米國政界가 最近까지 複雜怪奇하게 되는데 [illegible]

"極東의現狀維持 到底히不可能!"
援將루트遮斷과 米紙論評

【華盛頓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의 워싱톤·포스트紙는 日本軍艦의 海防巡航에 關한 問題를 取扱하여 [illegible]

內外事象을深察 新秩序建設에邁進하라
支那事變三周年記念日압두고 倉茂報道部長談

오는七月七日의 支那事變三周年記念日을압두고 倉茂朝鮮軍報道部長은 二十八日午前에 新聞記者團에게 다음과가튼 談話를 發表하여 一般國民의 注意를 喚起하였다 [illegible]

獨空軍大將 事故로墜落死亡

【伯林二十七日發同盟】獨政府는 二十七日 [illegible]

米、外國船舶의 抑留權發動

孟買港封鎖 掃海하기爲한措置

北樺太油田을 蘇聯紙自讚

海軍艦艇活躍

企畫部第四課 七月一日부터開設

人事·集會

八面鋒

安岩莊住宅賣切迫近

高級住宅犧牲的廉價

第二로는 京城府區劃整理住宅地域임으로道路下水完備하여잇습니다

價格 壹戶 九、五間부터 十五、五間까지 壹間當四六〇圓부터 四九八圓까지 建坪 一坪當 三七〇圓

交通 敦岩町停留場서 五分 競馬場入口서 十分 京城府敦岩區劃整理區內요 都心鍾路에서 三十分

水道 時局下 物資難을 克服하고 各戶에 完備하엿습니다 電燈도 勿論完備하엿습니다

槪況 背後에 綠陰이오 南傾斜日光과 空氣淸凉하며 京城府區劃整理 住宅地임으로 道路와 下水가 完備하여잇스며 附近은 小學校·中學校·專門學校等이 잇서서 子弟敎育上 最優良地입니다 第一 當社가 자랑할 點은 七尺四方一間을 尊重하고 實生活과 建築美를 恒常細心하여서 온집입니다

申請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番地 朝鮮工營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三一二七 九八四

預金利率改定廣告
一、定期預金 甲種 年三分五厘以下 乙種 年三分九厘以下
右昭和十五年七月一日ヨリ實施
昭和十五年六月二十七日
京城預金協定加盟銀行

流行歌의指針盤!! 오케一七月傑作新譜
望鄕의쌔취 李蘭影
青春離別 朴響林
떠도는마음 李寅權
찌저진치마자락 張世貞
꿈꾸는鏡台 徐玉子
思鄕의船歌 金貞九
新作노들江邊 李花子
輕音樂 茶房의푸른꿈
傑作民謠알범 오케-쌘드
끼타-獨奏 양산도、방아타령 外三曲 金海松
탄 쎈 쓰 그다음放送 上下 李福本
俗謠 보렴上下 趙錦玉 趙蘭玉
오케-레코-드

月經

朝報園

賣家 洋服及靴糸 錦華絹糸店 電話賣買 同業 運轉手募集 ミシン組立工募集 コリアミシン製作所 招聘 支部長以外務社員各地方出張所長 土地를買入함

專門委員會制廢止 五部會로即決速行
物價委員會의機構改革

조선물가정책의 중요성인 추 독보물가위원회의 기구개혁에대 하여는 시국하에부자단한 물가 정책수행을 원활히수행케 하기위 하여 총독부물가조정과(物價調整課)에서 시중하여오든 이미종 바 드디어성안을어더서 이미총 독의결재까지 어덧슴으로 이십 팔일 제이십이회 위원회를거처 서 즉시실시하기로되엇다 즉 새기구는 종래의육개전문 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오 대부회(五大部會)를설치한후 여 기서 전의한것으로써 위원회의 결의에 대신하기로하여 중대물 가정책과 중요물자의가격을 결 정하는것이외는 전부 각부회에 서속처하여 즉시 실시에옮겨가 지고 물가정책의 신속처결을도모 하기로되엇다 그리하여 오개부 회를설치하고 그아래에 실행전 문위원회를 창추하여 종래 일 백이십명의 위원이 더것을 이백 오십명으로 증원하는 외에 다 시 필요에응하여 연차를 임시 위원으로 선임하며 또 위원회 에는 소비자대표도 다수 참가 시키고 부인위원도 선임하는등 민의(民意)를 망라하여 실정에맛 는물가 정책을수행하라는것으로 서조선물가 정책은 이기구개혁 에의하여 획기적으로 철저와진 전을보게될것으로 기대된다 그 리고그기구의 내용은 다음과갓다

第一部會 (纖維)(1)면사와『스푸』(人造絹絲)이버『제품(2)견사(絹絲)와 인견제품(3)모사와 메리야쓰 포백(布帛)제품 (4)마사(麻絲)제품의 네전문위원회를설치

第二部會 (燃料)(1)석탄과 (2)석유 (3)신탄 세전문위원회를 설치

第三部會 (金屬化學工業品)(1)기계기구 (2)금속제품 (3)화학공업품 (4)의약품의 네전문위원회를설치

第四部會 (食料品及農水産品)(1)주류와 조미료 (醬油類) (2)일반식료품 (3)농산물 (4)수산물의 네전문위원회를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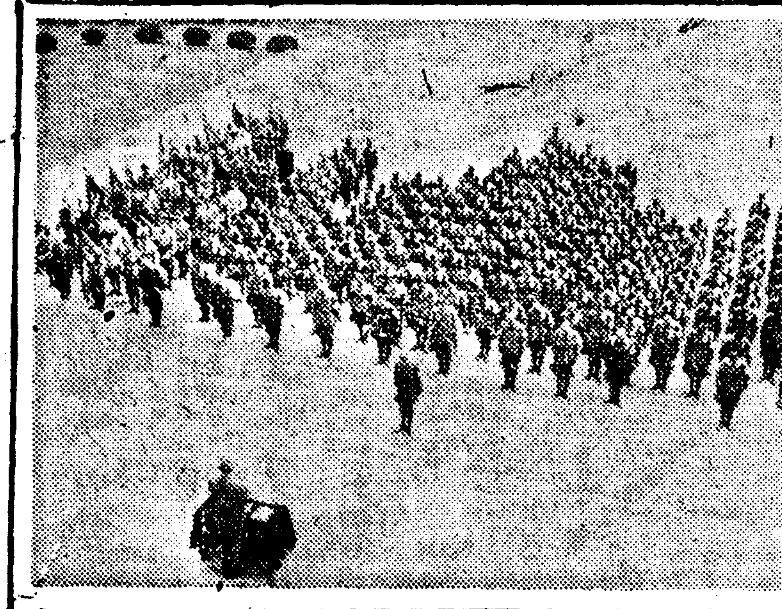
第五部會 (雜貨)(1)고무피혁 (2)목재 (3)잡화의 세전문위원회를설치 그리고 각부회의 위원장은 전부 이미내정되엇는데불원간 각각내탐을 어든후발표하기로되엇다

農村의講習所노코
"내것이지 네것이냐?"
百餘名洞民이監理會거러告訴

서울의교육기관으로 세워논조 고만 강습소를차자고 동민일백수 십명과 기독교감리회 유지재단 (基督敎監理會維持財團)이 서로 네것이냐? 내것이냐?하고 싸 우든끄테 법의재단을 바라게된 불상사가 버러젓다 수원군반월 면(水原郡半月面) 이장화(李鍾學)씨등 일백십오명은 부내정동 정(貞洞町)재단법인 기독교감리 회유지재단 대표이사『예천.떡. 아펜셀라』씨를걸어 이심명일부 동산소유권확인청구의 소장을경 성지방법원민사부에 제출하엿는 데 그이유는 이러하다

수원군반월면에는 소화칠년까 지 건건리(乾乾里)소학교외에는 공욕기관이업서 동네아이들은 십 리내지 삼십리나 떠러저잇는 전 기소학교에 다니게되어 불편이 만코 또 자연그대문에 취학연 령에달한 아동중에도 학교에안 다니는아이가 만흔것인데 때마 침 고 천흥신(故 千興信)씨라는 예수교여신자가 동리에 오든것을 기회로 자체의 교육에 필요를하 진동민들이 그에게사숙(私塾)을 지어 교사 노흥해달라고 부락 하여 강습소이가를맛고 강습소 로 목조십오평의 집을지어 이 래 만호아동을 공부시켜왓섯다

그집을지을때 동민들은 자제교 육을위하여 동면사리 전곡(四里 果谷)부락의부인들의 단체 인 천국저축계 에서는 계관과 채소등을 팔아 푼푼이 모흔돈과 여 오백여원을 내엇고 또 최 용신씨의 알선으로 기독교여자 청년회에서는 일백오십원의 보 조금을 내엇스나 그후 강습소 는 전부 동민의 기부와 수업 료로 경영하여오고 기독교여자 청년회본부로부터는 아무보조가 업 서와왓든것이다 그러데금년삼월에 이르러 수원군에서는 반월면에 이년제의 간이학교를 세워주기 로되어 동민은 전기강습소를나 이학교로 쓰도록 하려하엿든바 동연 피고인기독교조선감리회유 지재단에서 그사용을 거절하며 이집은 자기재단의 소유로 소 유권보증기까지 하여둔것이라 하며 무료대부까지 허락치 안 는 이유로 이강습소를 짓는데돈과 힘을 바친 동민일백십오명이 겨 분하여 전기와 가튼이유를세부 하여 소장을 네게된것이다



滿洲建設勤勞奉仕隊
朝鮮部隊또派遣
今日壯行會·明日出發

만주대륙개척의 국책성실에협력 양하기위하여 총독부에서 작년 부터 실시하는만주건설 근로봉 사대 조선부대(滿洲建設勤勞奉仕隊朝鮮部隊)는 이미백명씩 보 내어서 그훌륭한성적은 금부기 타 각방면의절찬을 바덧거니와 금년은 전조선각군에서 모범청 년백명씩 접부이백오십여명선 발하여 두반에나누어가지고 학 목국고국(高木郡)과 왕청(汪淸)두현에보 내어서 일개월동안 대륙개척에 근로봉사한후 도라오기로되엇다

이들은 이십구일아침 저녁무렵 에나누어서 경성역에서 출발할 터인데 떠나기전하루를앞서 이 십팔일오후까지 접부경에 도착 하엿다 이날오후시부터는 총 독부정문압광장에서 남총독이 장 하에장행식(壯行式)과 국기 대 기수여식을 엄숙성대히 거행하 엿는데 그식순과 조선부대의편 성 출발시간은 다음과갓다

◇滿洲建設勤勞奉仕隊朝鮮部隊壯行式並國旗隊旗授與式順

一、開式辭
二、國歌合唱
三、宮城遙拜
四、合同祭拜
五、國旗及隊旗授與
六、奉仕隊綱領奉唱
七、訓示(總督)
八、皇國臣民誓詞奉唱
九、『바다로가면』合唱
十、天皇陛下萬歲奉唱
十一、閉式辭

部隊編成

▲延吉班=京畿、忠北、忠南、全南、全北、慶北、慶南、黃海(一六二人)
▲汪淸=平南、平北、江原、咸南、咸北(九二人)

▲延吉班輸送日程表

月日	地名	發車時刻	到着時刻
六月二十九日	京城	午前七·五	
同	城津		午後一一·三〇
三十日	城津	午前二·〇〇	
同	朱乙	午前二·三七	午前一〇·五五
同	南陽		
同	延吉	午後一·五〇	午後二·一八
同		午後四·三	午後八·三

▲汪淸班輸送日程表

月日	地名	發車時刻	到着時刻
六月二十九日	京城	午後六·二〇	
三十日	鏡城		午後六·二〇
同	鏡城	午後六·二三	
同	圖們		午後一一·四〇
七月一日	圖們	午前六·三五	
同	汪淸		午前一〇·五〇

(사진은 총독부광장에서 장행광경)

總督府의流汗部隊
三千名으로編成
七月一日부터十二日까지出動

총독부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총독부련맹에서 지난번에 결정된 바 다음과 같이 근로봉사를 실시하기로 되엇는데 칠월일일부터 일일부터 십이일까지 각 국과별로 매일 일백여명의 근로봉사대가 동원되어 경성부외 학교운동장의 정리사업에 종사키로 되엇다 그 일정과 인원은 다음과 갓다

勤勞奉仕日程

日	人員	部局
七月一日(月)	二四七	官房(除會計課)、內務局
二日(火)	一七一	會計課、學務局
三日(水)	二六二	內務局內全
四日(木)	二〇〇	財務局內
五日(金)	三九二	殖産局內
六日(土)	二九四	農林局中林政課、林業課除全部
八日(月)	三〇二	林政課、林業課
九日(火)	一八四	法務局及企畫部全部
十日(水)	一六二	警務局及外務部全部
十一日(木)	二〇五	警務課及防[illegible]
十二日(金)	二〇六	警務局中警務課、防護課除全部

海上生活者를團束
卅五萬名에豫防注射
一衣帶水인支那에虎疫猖獗

일의대수(一衣帶水)의 황허를 사이에두고 지나각지에 무서운 호열자가 창궐하기시작하엿스므 로 조선에서는 자위적방역진(自衛的防疫陣)을 느리기로 결정하 고 총독부경무국에서는 이십삼 일각도지사에게 엄중한방역대책 을지시하엿다

지나의호열자는 지난오월이십 삼일경성지방에서 처음으로 발생한후 상해에칠입하 여 벌써삼십명의 환자를내엿고 금월이십일에는 다시북지당고 (塘沽)에 진성코레라환자가 발생하여 점차창궐할 위험성이 농후한데 조선은사변이래 지나 대륙과의 내왕이특히 빈번한의 고 이무서운병이 언제 침입할 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철저 한 방역대책이 필요한데 총독 부에서는 위선 제일차계획으로 만개각도연안의 해상생활자와 주 요항구의 해사를 취급하는 해상 운송도는 운반여자 기타 이를 파밀접한 관계가잇는사람 삼십 오만명에 대하여 속히예방주사를 실시하여 면역망(免疫網)을구성 케하여 방역에 완벽을 기할라는 것이다

揮發油를闇買

부내 신당정(新堂町)이백구십 이번지이십칠호 시라상 김윤식(金潤植)은 자기소유인 화 물자동차가 하벌일조로으로 몸 지기지 못하고잇서서 상업에지 장이 만흠으로 패를내어남대문 통 영우회사(榮油會社)서 경영 하는 경성부청압 자동차급유소 와 삼각지(三角地)급유소에 근 무하는 서대문정(西大門町)삼정 목 김옥순(金玉順)(二二)가명을 꾀여 가지고 지난사월초순부터 유월상순경까지에 삼백륙십리 터를 밀매한것이 면경찰서에 문서 경제계에 발각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밧고잇다

百二十三種의染料價도公定

경기도에서는 이십팔일부고시 로 일백이십삼종의 물감(染料) 공정가격을 발표하고 즉일실시 하엿다

米穀뿌로커-檢束

이십칠일 부내본정서경제계에 서는 대화정(大和町)이정목에서 미곡『뿌로커』를 하는 신흥식(申興植)(三七)을 부잡아다가 취조중인데 그는 얼마전부터 죽첨정(竹添町)모정미소에서 쌀을몰래사다가 욱정(旭町)의정형이모(李某)외에 백여명에게 공정가격이상으로팔 아서 부당이익을본 것이 탄로되엇다

必需品의傳票制
實施影響等調査
大邱商議所에서

【慶北支社發】대구 상공회의소 에서는 상공업의 실시내용 실시후의 부에서는 위선 제일차계획으로 (大邱商工會議所)에서는 생활필 수품배급표제의 보급향상에비 하여 이것의실제상운용과 일반 경제계에미치는 영향등을 실시 하기위하여 상황의 세별로 조사에착수하엿다 이결과로써 개선방침을 정하고 가정에서 밧는 영향등은 실 지 전표제도에대한 모든것을 합리로서 그결과가 잡으면 보고된다

身病을悲觀한
少婦自殺未遂

이십칠일 저녁여덟시십오분경 부내신당정(新堂町)일백이십칠번지 이모씨의처 박금순(朴今順)(二一)은 집안사람의 눈을피하여 지 살을하고저 양조산(揚酸)을마시 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 람들이 발견하고 곳의전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한결과생 명은 구하게되엇다 자살하려한 이유는 악이년전부터 신병으로 고생하여 여러가지로 치료하엿 스나 낫지안허 세상을 비관한 것이엇다

요새가어느때라고
썩은고기를파는가
冷藏庫속에서惡臭가풍풍

위생당국은 칠월일일부터 극히엄중하게 식품 단속을 하기로 하엿다 이십팔일 종로경찰서 위생계에서는 이지음 날씨가 더워지고 고기가 변하기쉬운것을 대비하여 각 정육점과 육고상의 냉장고를 조사중 관내 육고상 위생계에서는 주일동안 육고상의 냉장고안을조사하여 중국사건이 일어나지안 케하려고 하는데 경개하고 [illegible] 한채로 썩은고기가 들어잇는곳을 발견하야 엄중주의를 주엇다

記念時局講演會
同民會本部主催

부내화정 동민회본부에서는 칠월칠일 사변삼주년기념일을 당하야 기념하야 세계대전과 신동아건설을 주제로 기념시국강연회를 열기로 되엇다 일시는 칠월칠일 오후 여덟시 장소는 부민관 대강당에서 다음과가티 연사로서 개최하게 되엇스며 입장은 무료이다

一、歐洲戰爭과 日本의立場 陸軍少將
二、日本의南方經綸과 京城帝大敎授
三、歐洲戰爭과日本海軍 海軍大佐
四、「노몬한」事件의體驗(代表戰死者家族) 伊藤…
五、映畫

中等學校長會議
今日부터道에서開催

경기도내 공사립중등학교 교장회의는 예정과가치 이십팔 일오전아홉시부터 도청제일회의 실에서열렷다 회의에 참석한교 장은 오십여명이고 먼저 영천(鈴川)지사의 훈시가잇슨다음 신곡(神谷)내무부장의 주의사항 과 주의사항에대한 협의를하고 이회의는 이십구일까지 계속된다

元山商議所總會

【元山】원산상공회의소에서는 이십칠일 동소두상에서 오후한시 부터 의원총회를열엇다 의안 은작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와사업보고를 전부통과하고 조선상공회의소 지부와 관계로 협의를하고 오후네시 무사폐회하엿다

鑿岩工養成所
第七期生募集

총독부착암공양성소(鑿岩工養成所)에서는 제칠기생을모집 중인데 정원은오십명 양성기간 사개월이고 응모자격은 상당의 체력이잇 고 마친후에 취직하라는 상당의 추천이잇는사람이다 모집마감은 칠월말일까지이다

莞島郡青山島에
無線電信을設置

전라남도 완도군청산면(靑山面)은 조선에우수한 어항(漁港)이며 섞어기도 가까운스 므로 고기잡는 사람의면보기로 구월하순까지 동지 기에 체신국에서는 오는칠 월일일부터 청산도(靑山島)우편국장소에다가 무선전신설비를 하고 (木浦)무선전신국에서 중계한다고 일반의 편리함을 기하게 되엇다

遺産이不和의張本
同生과母親에게暴行

맛아들로서 유산을 독차지 하라고 친동생을 내쫏고 자 기를나허준어머니를 구타하고 서 경찰서 유치장신세를지는 천하의 불효자식이잇다

부내삼판정(三坂町)삼백이번지 미곡상 김석태(金錫泰)(三七)는자 기아버지의 유산 오륙천원을 독차지할작정으로 하나밧게업는 친동생 석현(錫鉉)(二〇)을 내쫏 차 부락자가되게 하여놋코 더 이십사일밤에는 동생의편을 든다 하여 자기를나허준 친어머니도 목을누르고 심지어는 치어머니를 하여 전치두주일을 요하는 부 상을입히어 소란한가정에서잡 혀와다 그러나 여지 경찰의타 이롭도 듯지안흔것을 계속 자 기짐을 깨뜰때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거되엇다

電報配達時間變更
七月一日부터實施

깁흔밤에 『전보요 전보요』하 는 소리를듣고 깜작놀래서 나 가보면 대수롭지안흔전보인데가 라도 그리하여 종래에는 오후 열두시가지나서 도착한 보통전보 는 그다음날아침에 일저이 배 달하엿섯는데 체신국에서는 지 난밤에 시간을 두시간을치 커울리는 동시에 배달시간도한 시간을 치커올리어서 보통전보 는 오후열한시까지로 개정하고 열한시이후에 도착한것은 그다 음날아침에 배달하기로 결정하 고 오는칠월일일부터 실시하기 로되엇다 그리고 지금의 전보 는 시간에 제한업시 종전대 로 취급하기로되엇스나 만일엽 러가지 긴급한 경우에 밤중에 라도 배달하여주기를 바랄때 에는 전보용지에 지정(指定)이 라고써서 배달전보(配達電報)로 하거나 『ヨ』를 써너흐면 밤중에 라도 배달하기로되엇다 그리고 별사(別使)로 하여금 배달하지안 할 때는 배달료와 별사 배달료를 물게되엇다

富平驛前郵便所
電話區域과料金

부평역전우편소는 전화교환사무를 개시하기로 되엇는데 통화구역과 요금은 다음과 갓다

	通話區域	通話料	一通話의呼出料
富平驛前郵便所	金浦	三十錢	二十錢
同	陽谷	三十錢	二十錢
同	江華	卅五錢	二十錢
同	溫水	四十錢	廿五錢
同	朱安	十五錢	十錢
同	仁川府廳前	十五錢	十錢
同	仁川	廿五錢	二十錢
同	永登浦	三十錢	二十錢
同	京城府廳分室	三十錢	二十錢
同	臨川	三十錢	二十錢
同	京城	三十錢	二十錢
同	開城	四十五錢	廿五錢
同	果川	卅五錢	二十錢
同	安養	三十錢	二十錢
同	議政府	三十錢	二十錢
同	水原	廿五錢	二十錢
同	平壤	九十錢	四十錢

府營勞働宿泊所
十萬二千五百圓으로新築計畫

현재 경성부영 노동숙박소로 서는 황금정(黃金町)삼정목에 한 곳이기는하나 건물도 낡고 비좁 을뿐아니라 협착하기 그지업서 이 때에서는 대경성의 체면상으로 도 부끄러운일이라고 부사회 파에서는 명년도에 남부기에부 끄럽지안흘만한 부영숙박소한개 를 기어히 신설해보기로 방침 을정하고 어지음 여거대한예산 안파함께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엿다 계획안의 내용을보면 총경비 십만이천오백원에 국고보조 삼만원을 신청하엿는데 완성된다면 노동자 이백명을 수용하게 될것으로보고 일반의 기대가 크다

東京在學生代表軍
鄕土訪問拳鬪
朝拳代表軍과對戰

東京在學生으로 組織된 東京 學生拳鬪代表軍은 하기휴가를 리용하여 鄕土訪問拳鬪를 하게되어 京城에서는 七月二日(火)午後 朝拳代表軍과 對戰하기로 決定되엇다

京鐵各署對抗柔道
鍾路署三年間連覇

京畿道警察部主催 第十七回 京畿道各署對抗柔道大會는 지난 二十六、二十七兩日間 光化門通 警察部武道場에서 開催되어 鍾路署가 優勝하엿다

三角山署明日開場

國際水上聯盟計畫
水上三傑을表彰

米國職業野球方面
淨化된首位爭奪戰

◇【아메리칸·리-그】

		勝	敗	率
1、	인디안스	38	23	[illegible]
2、	타이거스	34	22	[illegible]
3、	빅즈	32	23	[illegible]
4、	양키스	28	26	[illegible]
5、	브라운스	28	33	[illegible]
6、	白속스	26	31	[illegible]
7、	아슬레틱스	22	23	[illegible]
8、	세네타스	24	38	[illegible]

◇【내숀낼·리-그】

		勝	敗	率
1、	레즈	38	20	[illegible]
2、	도자스	34	19	[illegible]
3、	자이안트	33	21	[illegible]
4、	캅스	32	29	[illegible]
5、	카지날스	22	32	[illegible]
6、	파일레트	21	31	[illegible]
7、	赤속스	19	32	[illegible]
8、	필리스	19	34	[illegible]

今夜의라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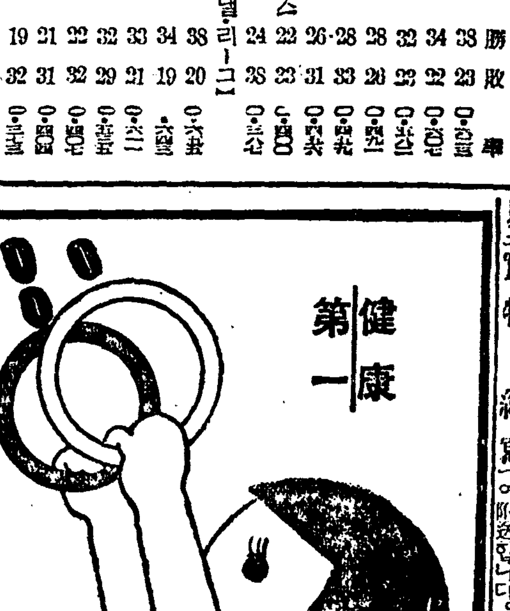
第二放送 ▲午後六時三十分(咸)吹奏樂▲同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同七時支那語講座▲同八時 라디오드라마(平壤)▲同八時獨唱(咸興)▲同八時二十分 唱劇調▲同九時 明治大正名作文庫라디오▲同十時十分對外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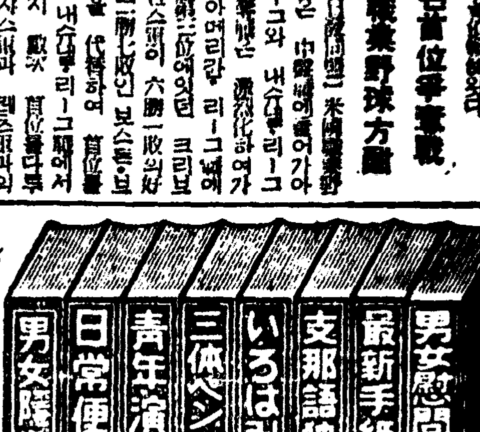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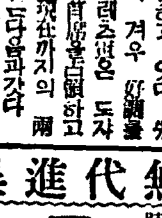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六時(城)이야기▲同六時二十五分(城)講演▲同七時四十分(中文)講演▲同八時(東)吹奏樂▲同八時二十五分(東)浪花節▲同八時四十五分(東)歌謠曲▲同九時十分(東)時局解說

街燈

거리에 지나 다가보면 널절 한글씨이나 주 점방이의 개집 이 옷의 카페이란 고급『사교장』이란 곳이나 써 붙여놓은 간판이 눈에 띄인다

	朝	晝	夕	每食直后
1日	二錠	一錠	二錠	上膿止痛
2日	二錠	一錠	二錠	淋絲消失
3日	二錠	一錠	二錠	〃
4日	二錠	一錠	二錠	完治


健康第一
V·ABCD綜合榮養劑
製法特許
コンビター
コンビターは……
☆肝油(V·A·D)와V·B·C와를一丸으로含한 日本唯一의理想的榮養劑
☆普通肝油의 五十倍以上의V·A·D와V·B·C가 渾然一致의 綜合作用을發揮하여 從來의單一한 肝油劑에 만흔 消化不良, 食慾不振, 嘔吐等의副作用이全然업다
☆小豆만한 極小糖衣粒으로서 菓子와가티 누구나쉽게잡수실수잇습니다.
☆兒童의發育促進에 腺病體質의根本的强化에 結核의豫防에 理想的榮養劑
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製造元 帝國水産化工研究所
AC-22

特別景品付 八册辭典 八大亂賣
八册을單壹圓七十錢에投賣

男女慰問手紙文集
最新手紙大辭典
支那語獨習辭典
いろは引大辭典
三体ペン習字辭典
青年演說辭典
日常便利辭典
男女隱語秘密寶典
破天荒의大安價
發行所 京城 大手社販賣係
無代進呈

實物縮寫
特別景品 記하고『解典八册組』朝鮮日報愛讀者라證明
文者에限하야 辭典普及
大宣傳으로一次上揭한特別
大景品一個씩無代進呈

月經痛, 月經不順, 子宮出血等에.....
ユウトン
全國有名藥房販賣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② 一五九七

돈버는機械
(式ノロペ)
城野製作所

國民保健

世界的新發明
몸나는약
肥滿丸
肥滿丸의特效
價 三十日分 二圓
本舖 國民體育會

朝鮮音萬國記號表示

朝鮮語學會制案 ❶

總則

第一項 朝鮮語音을 萬國音聲記號로 表記함에는 一般 實用上 便宜를 爲한 廣義的 表記法과 科學的 精密을 爲한 狹義的 表記法의 두가지 方法으로 나누어 각기 경우를 따라 適當한것을 使用하기로 한다.

第二項 廣義的 表記法은 아래의 「廣義的 對照表」에, 狹義的 表記法은 「狹義的 對照表」에 各各 依하여 表記한다.

廣義的對照表

홀소리(母音)

ㅏ	a	아들(子)	adɯl	갈나무(栢木)	ka:rnamu
ㅓ	ə	어머니(母)	əməni	성정(性情)	sə:ŋdʒəŋ
ㅗ	o	오빠(男兄)	oppa	노인(老人)	no:in
ㅜ	u	우물(井)	umul	굴뚝(煙突)	ku:ltuk
ㅡ	ɯ	으뜸(元)	ɯtɯm	들판(野原)	tɯ:lpan
ㅣ	i ji	이마(額)	ima	비탈(傾斜)	bi:tal
(ㅁ)		벌라(謎)	[illegible]	논스일(畓事)	nonni[illegible]
ㅐ	æ	애초(太初)	ætʃo	냉수(冷水)	næ:ŋsu
ㅔ	e	에끼(感歎詞)	eʃi	넷(四)	ne:t
ㅚ	ø	외딸(獨女)	øtal	죄인(罪人)	tʃø:in
ㅟ	wi	위로(慰勞)	wiro	쉰(五十)	ʃwi:n
ㅢ	ɯi	의복(衣服)	ɯibok	희우(喜雨)	hɯi:u
ㅘ	wa	와락(急遽貌)	warak	광활(廣闊)	kwa:ŋhwal
ㅝ	wə	워낙(元來)	wənak	권고(勸告)	kwə:nko
ㅙ	wæ	왜못(倭釘)	wæmot	괘히(恣然)	kwæ:nhi
ㅞ	we	웨(感歎詞)	we	궤(机)	kwe:
ㅑ	ja	야윈(瘦)	jawin	얌전(端正)	ja:mdʒən
ㅕ	jə	여든(八十)	jədɯn	며경(明鏡)	mjə:ŋgjəŋ
ㅛ	jo	요새(近頃)	josæ	교묘(巧妙)	kjo:mjo
ㅠ	ju	유리(琉璃)	juri	윤달(閏月)	ju:ndal
ㅒ	jæ	얘기(話)	jæɡi	걔(其兒)	kjæ:
ㅖ	je	예서(自此處)	jesə	계집(女)	kje:dʒib

닿소리(子音)

	첫소리(初聲)	끝소리(終聲)			
ㄱ	g	g	ㅈ	dʒ	d
	가게(店)ka:ge	떡(餠)tək		집(家)dʒib	젖(乳)dʒəd
ㄲ	k'	g	ㅉ	dʒ'	—
	꿈(夢)k'um	밖(外)bak		짝(隻)dʒ'ak	
ㅋ	k	g	ㅊ	tʃ	d
	칼(刀)kal	부엌(廚)buək		차(車)tʃa	꽃(花)kod
ㅂ	b	b	ㅅ	s	d
	발(足)bal	납(鉛)nab		손(手)son	옷(衣)od
ㅃ	p'	—	ㅆ	s'	—
	뿔(角)p'ul			쌀(米)s'al	
ㅍ	p	b	ㄴ	n	n
	팔(腕)pal	앞(前)ab		날(日)nal	돈(錢)don
ㄷ	d	d	ㅁ	m	m
	달(月)dal	맏(昆)mad		물(水)mul	마음(心)maɯm
ㄸ	t'	—	ㄹ	r	l
	땀(汗)t'am			사람(人)saram	불(火)bul
ㅌ	t	d	ㅇ		ŋ
	털(毛)təl	밭(田)bad		(細則三)	방(房)baŋ
			ㅎ	h	(細則二)
				호미(鋤)homi	

學藝

漢詩募集

題 新雨 押先韻部 期限七月十五日 滄東考選 (當選掲載)

문허저가는·낡은歐羅巴 ❶ 文化의新大陸 (或은"最後의歐羅巴人들")

林和

(十六世紀)에 亞米利加는 周知하는바와가치 世界地理上의 新大地로登場하엿다. 그것은 最初勇敢한 商人의 冒險에依하여 發見되고 뒤이어 歐羅巴의 農民과 犯罪者와 零落한市民들의 渡洋으로 開拓되어갓다 그러나 亞米利加가 겨우 世界經濟의 새 領域으로 歐羅巴의 閱歷에 나타나기 시작하기는 歐洲 諸國의 政府와 大貿易會社가 阿弗利加의 黑人群을 실어다가 大規模의農業을 시작한 以後의일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亞米利加는 單一 歐洲의 大農場 或은 大鑛山에 지내지아넛다. 바꾸어말하면 大洋貿易과 植民地掠奪의 새로운 對象에不過하엿다.

亦是 北米合衆國이 出現하고 亞米利加가 工業國으로, 或은 純粹한 一個經濟世界로 西歐를 向하야 自己의 地位를 要求하게되기爲하야는 歐羅巴의 (産業革命)이 必需物이다. 近代 世界를 形成한 要因가된 이 技術的條件의 移植으로 亞米利加는 自己의農業을 再編成하고 工業을 生成시키고 政治를 樹立하엿다. 이때부터 亞米利加는 歐羅巴에 對하야 分明히獨立한經濟圈이되고 나아가서 政治圈으로서 性質을明白히하기 시작햇다.

그러나 亦是 亞米利加가 世界에 그頭角을 나타내기 위하여는 大英帝國의 世界支配가 衰退하기 시작하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할수 업섯다.

一九一四—一九一八年大戰이비로소 亞米利加로 하여금 英國에 다음가는 世界秩序의 主役으로 登場시켯다. 五年에亘한 이大戰爭이 米國의 參戰으로 끗낫다는것과 『윌슨』氏가 『베르사이유』會議의 指導者이엿다는 諸事實은 意味深長한 事實이 아닐수 업다. 그것은 단지近代的 (世界秩序)에잇서 歐洲의 領導權의 二分일뿐아니라 實로 歐洲의 領導權自體의 移動의 可能性을 意味하는 事實이 아닐수가업다. 敗戰國獨逸뿐이 아니라 戰勝한 英國이나 佛國에도 이러한 徵候는 적지아니한 사람들의 머리에 번득이엇다.

그러나 文化의 移動이라는것은 누구나 꿈에도念頭에 올리지 못햇든事實이다.

그것은最初부터 亞米利加란 文化圈이 아니엇기때문이다. 거기엔 『잉카』帝國이 남긴若干의 遺跡과 『토템』이 硏究할 古代的諸現象이 殘存할따름이엇다. 이것은 勿論 西歐人에게는 無緣한 물건이다.

그들은 初期에는 勿論 『괴수들』과 毆鬪하게 엇섯스나 富가 蓄積되어 冊을 읽을 生活의 餘裕도 생기고 冊을 著述할 心理的餘裕가 생겻슬때에도 自己의 文化라는것을가즐수는 업섯다. 『에머ー슨』이나 『휫트맨』 『포ー』와가튼 大藝術家가 난뒤에까지도 (亞米利加)가 歐羅巴의 文化的 植民地인 역다는것은 모ー든 觀察者의 一致하는 見解다. 그것은 첫재 亞米利加의 傳統이 缺如하여 잇섯다는데 原因이 잇슬것이며 또하나는 米國民이라는것이 混合된 民族이라는데 原因이 잇슬것이다. 그리고 이 兩者는 서로不可分離的으로交涉하야 떼ー코라스·오ー버튼가튼 사람의 말하는 文化의 非統一性을 結果하엿슬것이다. 利害에 依하여 個人들은 關係하고 便宜에 依하여 各民族은 聯結되고 잇섯다.

今世紀가 되어 生活의 노픈 技術, 例하면 機械·汽車이 亞米利加的秩序의 미를 바치고 잇게 되엇는지도 모른다 그럼으로 亞米利加의 精神이 업는대신 機械가 잇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機械는 社會的으로는 利益과 便宜의 象徵인 同時에 精神的으로 (合理性)의 表現이다. 그럼으로 萬一 機械를 精神에 대신한다고할지라도 그것은精神的으로는 歐羅巴的合理性의延長에不外하게된다. 이것은 十九世紀의歐羅巴精神과 또한가지 論하지아니할수업다 이것이 또한 亞米利加가發已期에臨한 (萬一그러케될수업다면)歐洲文化의 最後의 存續地도서의 素地다.

이번戰爭이 萬一西歐에서 十九世紀를 最後的으로淸算한다면 西歐에 다음햇것은 二十世紀의 文化일것이다. 그러나그것이 『게르만』文化의 支配가 아닌것은 民主主義가 血族主義에依하여 交代될수업다는事實과 彷彿하다. 그러나 『로달리즘』의 勝利가 進行한다면 民主主義政治의 最後의 (殘存領域)에로또한음 기지안할수 업는것도想像할수잇는일이다. 그런意味에 亞米利加는 歐羅巴文化의 最後의樓息地가 될뿐만 아니라 文化의 新大陸이 될수도 잇다(了)

當選漢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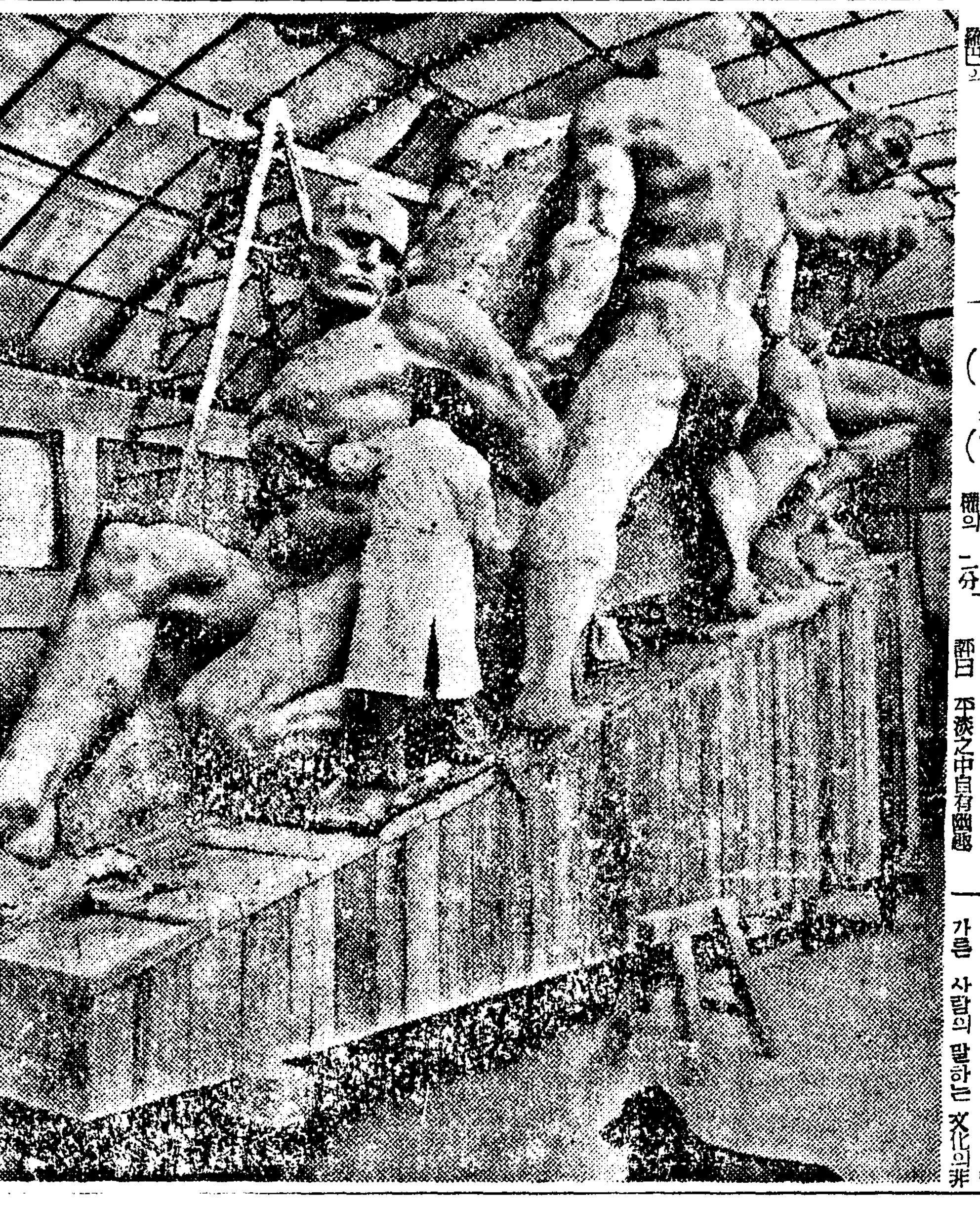
綠陰 滄東考選

三等之二

全州府大正町五丁目五 一亭 柳慈雨

春歸花事盡
綠樹正芳陰
老蝶迷殘夢
新鶯送好音
葱蘢連野密
隱映掩樓深
滿地凉如水
驕陽不得侵

評曰 平淡之中自有幽趣



新獨逸美術의한 "타입"

☆이것은政府의註文으로된 彫刻中의하나로서 半分以上完成된것에 가까와가고잇다. 完成되면 『장合부르그』아페세울道路記念像이다. 큰象을運搬하는 世道路人夫들로된 構圖는 그緊張되고 集中된躍動와함께 이나라에 發生하는 新興의어떤 『타입』을 暗示하는듯하다.

泉鄕通信 (下) (白川溫泉에서)

張萬榮

나는 어딘가다는 아무런 『플랜』도 업시 조용스길을 따라 그길이 案內하는대로 자꾸 거러간다. 散歩를 바라보는것도 아니요, 무엇을 생각하는것도 아니다. 다만 머엉하니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空想에 잠기어 거러가는것이다.

나는 多少 꽃의色彩와香기에 醉하엿는지 모른다.

무릇 발을 멈추고 보니 어느듯 나는 딸기밧 가운데 헤매 들어와잇다.

이近傍一帶의 地理를全然 모르는 나는여기가 어느方向의 어디가되는지 알리업다. 勿論 이딸기밧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른다. 꽤 넓은 面積을 占領하고잇는 딸기바타다 빨가케익은딸기가 올망졸망열린것이 옥어진 사귀들사이로 디려다보인다 이때 나의視野에 떠오른것은 조그만날근초가이다 草家래야 琉璃窓이 잇는등 어딘가 西洋風의것으로 그지은품이 여니때農家와는 딴판이다.

갑짜기 바리나타나고, 딸기밧속에 이런 외딴 집이 잇고 하니 내가 어린동절이진것도 無理는 아니다.

웬 집일까?

대체 저집의主人이란 어떤 사람일까? 好奇心이 무럭무럭 이러난다. 모든 傳說이라도 잇슬것갓다.

하여튼 가보장 가보면 알리라. 그래, 나는 다시거니기로하엿다.

別로 울타리도 庭園가튼것도업다. [illegible]

조용한것이 主人은 어디 나가고 업는모양갓다.

막우 도려가 문듯 門牌를보니 『코란지스·잠므』。!

아무리 눈을비비고 거듭바라봐야 역시 그러케 써잇다.

이것, 내가 꿈꾸는것이나 아닐까?

窓안을 가만히 엿보니 [illegible] 老人 이 혼자 安樂椅子에 누어잇다. 입에 무른『파이프』에서 나오는 煙氣가 조용히 나부끼며 나오는것으로 보아 잠들지 안는모양, 그럼 무엇을 思索하고 잇는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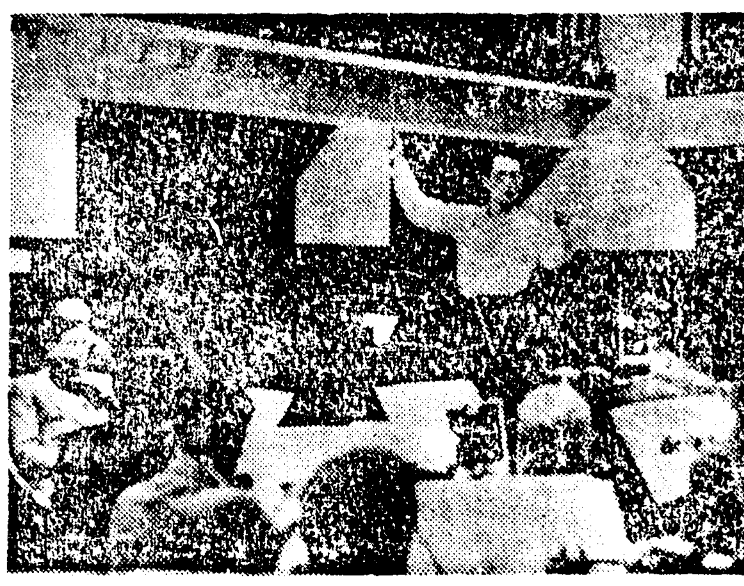
窓가까히 다가서서 任細히 도려다 보도 老人은 확실히 내가 寫眞으로 낫익은 詩人『잠므』氏다.

이러고 보니 아모래도 나는 『립·반·윙클』어 [illegible]

[illegible] 모른다. 나는지금 어디를 어떠케가야 내가잇는 『호텔』이 되는지 알수가업다. [illegible]

나는 불현듯 『호텔』로도라가고 시퍼젓다. 다시 오든길을 딸기바트로 나오다. 그러나 [illegible]

이다. 집에가보니 안해는 어 할머니가되고……



安益泰氏 羅馬演奏大成功

方今歐羅巴에 滯在中인 安益泰氏는 旣報한바와가치 지난四月二十日 伊太利首都羅馬에서 羅馬交響樂團의 演奏會를 指揮하엿는데 大好評이엇다. 五月二十四日에는 首府『베오그라드』에서 [illegible] 指揮하여 [illegible] (寫眞은 羅馬交響樂團을 다리고 練習하는光景)

第五回 音樂콩쿠르 今秋開催 詳細追後發表

指定曲目 審査委員會決定發表

聲樂部

一、나의女王……브람스 (Wie bist du, Meine Königin)

二、사랑의노래……브람스 (Minnelied)

三、小夜曲……리카르트 스트라우스 (Ständchen)

四、두명의擲兵……슈ー만 (Die Beide Grenadiere)

提琴部

콘체르토(D短調) 十九番……크로이처 第一樂章 (Konzert d moll No.19)

첼로部

콘체르토四番 G長調……골터만 (Konzert No. 4 G Dur. Op65)

洋琴部

奏鳴曲(A長調)……모차르트 全樂章(反復不要) (Sonate No. 14) (Variation) A dur

主催 朝鮮日報社

兒童藝術의現狀 ❶

楊美林

◇머릿말◇

問題의範圍가 너무廣漠하여 무엇을말하려는가 讀者의懷疑를 먼저자아낼뜻하나 兒童藝術의 한部門을 떼어가지고 그方法論을 말하기보다도 우리로서는 차라리 兒童藝術全般에 亘한 共通的 根本精神 乃至根本問題를 先決하여야 될 必要를 늣겨 [illegible]

根本精神 새삼스러히 兒童藝術의 定義며 體裁形式이며 方法等을 云云하는 原論的範疇를 펴려는것은 아니나 最近의 兒童藝術에잇서서는 [illegible]

◇兒童藝術에의關心 우리의兒童藝術이 [illegible] (復興擡頭)하여 社會各方面의 關心을 [illegible]

兒童自身 [illegible]

兒童藝術에의理解 [illegible]

自然陶汰 [illegible]

前途遼遠 [illegible]

動脈硬化 [illegible]

그러나 最近의 文壇, 作文의 敎育이라든지 音樂, 美術敎育의 兒童藝術의 接近을 記明치안코며 兒童藝術의 意義를 [illegible] 하지 안는것이 업다. (게속)

土曜詩壇

바위를안으련나

金秀人

노루산 사나운 바위우에 올라안저
굿어리는 宇宙를우러러 寥廓을 살필은
한가한 五月午后 잔디에 딩굴어 [illegible]를노래하려다
思念이 心臟에 [illegible]
窮理의 理窟이 思念의 꼬리를 사슴
으로써
太古에 멘토는 독수리가치 [illegible]
시름이니
灰色안개가 밀려들어 나의 心臟을 風化되기前
또 노루산 사나운 바위를 안고 귀를대여보련다
大地의 靈魂의 鼓動을 듯고 시퍼고
宇宙의 無限廣大한 울을 이제야 알앗읍이니
그러므로써 나의 思念은 理想 [illegible]
宇宙의 끄틀달리러다

修養 合理的心身鍛鍊法 (十二)

陸軍中將 秦眞次

四、無聲의指揮

主로 『氣ヲ付ケ』、『休メ』를 號令이 合一하기까지 (各個, 部隊敎練모다) 이는指揮者와 被指揮者와의 心身의 [illegible] 以心傳心, 氣合의合一에依하여 마치一體와가치 統一하게 動作하는것을 練習하는것이다.

五、陣中動作

1、步哨

가、假設敵을 내보내서 不意에 射擊시키고 이에應하여 [illegible]

나、近距離에 不意에 敵을내보내서 敵이 射擊을 하기前에 機敏하게 몸을 감출것

2、斥候

[illegible]

5、注意力增進을 爲한訓練

[illegible]

『評論集』

故朴龍喆氏遺著 李[illegible]河

編輯子가 이글을 特히筆者에게 付託한것은 밀시 故人과筆者의交誼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뜻에서 나온것이라 筆者는 그好意를 感謝하지아니할수업다. 그러나 지금 故人의 『評論集』을 읽고나니 筆者는 이글을 쓸 機緣을 지어준 編輯子에게 한번다시 感謝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겟다. 筆者近來에 이 『評論集』과 가치 지난 三日가치 感銘을가지고 읽어보것이 업기때문이다.

첫재 筆者는 故人이어느새이렇게만흔글을 썻든가고 놀라지아니할수업섯다. 筆者가 故人을 안五六年來 故人의 글이 [illegible] 不過四五篇밧게 안되기에 筆者는 故人亦是筆者와가치 [illegible] -이라고만 생각하고 또 그러케생각함으로써 한거름더 親近해짐을 느꼇던것이매 지금 筆者가 손에들고보는것은 七百餘頁의 厖大한 冊, 筆者는 스사로 얼굴이붉어지는것을 어쩔수가업다.

筆者가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것은 勿論 故人의 遺著가 七百餘頁의 커나란 冊이되는데만이 아니요 七百餘頁의 글이되기때문이다.

[illegible]

詩人은 진실로 우리가운데서 자라난 한포기나무다 酒畔한 하늘과 適度아래서 자라나고 長成하엿 [illegible]

[illegible] 物이다.

(發行所 京城府[illegible]洞町 東光堂書店 定價二圓五十錢)

逸史詩話

愼后의哀話 (二)

滄東散人

燕山主의 暴虐이 날로甚하여 國家의 覆滅이 朝夕에 잇섯다 그때에 成希顔、朴元宗、柳順汀等이 密謀하여 燕山主를廢하고 晋城大君을 推戴하기로決定하고 成希顔이그뜻을 右相金壽童에게 告하니 壽童이 가로대 이는國家의큰일이라 내가 이일에 首末을알지못하고 遽然히한 사람의 말을듯고 許諾지 못하겟다하고 곳木枕을 베고 누어가로대 君이내머리를베여가라하니 希顔이 晋城大君을 推戴하라는 뜻으로告하니 壽童이日 그런즉 내가 應從하겟스니 君이먼저가라하고 因하여 천천이 이러나 衣冠을 整齊하고 昌德宮아페이르니 希顔의무리가다 戎服을입고 士卒을指揮하는 [illegible]

지라 壽童이 말(馬)에나려 陣中으로 도러가서 上座에안저 곳兵卒을 놀려갈오대 너이들은 [illegible] 보내여 晋城大君의 私邸를 護衛하엿느냐하니 대답하되 밋처못하엿다 하거늘 곳 沈順徑을 보내여 [illegible]로 護衛하게하엿섯다.

이날 晋城邸에서는 갑짜기 甲士가 四面을 에워싸는것을 보고 왼家族이 [illegible]하여 어찌할줄 모르는지라 晋城 [illegible]

蘇聯新國防相 티모셴코

【모스코―同盟通信】 오래동안 蘇聯의 國防相으로 命令이 놉던 『와리시―로푸』 元帥가 突然國防最高會議長이되어 그後任에 『티모시엔코』가 推薦되엇다 『티모시엔코』라면 또누구인지 잘선생각나지 안치 [illegible]

만 이리보면 이는 蘇芬作戰에 잇서서 蘇聯의 [illegible] 였고 또 그功績으로 『스타―린』이 拔擢한 그의 寵兒인것을 알수잇다. 『세미온、처모시엔코』라면 昨年까지는 蘇聯서 그리 有名치안엇다. 그는 一八九五年 『벳사라비아』의 農夫의아들로 태여나서 今年에四十五歲 幼年時代부터 『로서안』貴族의 農業勞働者로 잇다가 一九一五年 『로시아』軍에 服役하고 東部戰線에 從軍하엿다. 一九一七年의 赤色革命에 [illegible]

明朗 [illegible] 아이생활 [illegible] 會舘 [illegible]

中小商工業對策 ⑥

新經濟倫理立脚

中小商工業活路如何

滿洲移駐問題

以上에 말한 政府의 中小商工業對策은 組合制의 擴充强化, 轉業者의 轉業對策及金融對策의 改善이다. 그러나 이러한것은 應時下中小商工業對策으로서 消極的應急對策에 不過하고 多分히 社會政策的 補償政策의 色彩가 濃厚한것이며 이러한 補助政策은 政府로서나 또는 中小商業者自身으로서도 願하는바가 아닌同時에 中小商工業問題를 解決할수있는 根本的對策이 될수없는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에서는 從來의 中小商工業經營의 合理化 或은 內地工業의 地方分散化等의 國內對策에 兼하여 一面에있어서 生活必需的物資를 中小商工業者에 對한 積極的轉業對策으로서 我中小商工業對策의 根本的方針으로하고저 大陸特히 滿洲國에의 中小商工業移駐를 問題삼게되었다.

이移駐問題는 眞純히 中小商工業對策으로서 그成果를 期待하는데 그치지않고 新東亞經濟建設의 先驅的役割로서의 重要性이 確認되고있는同時에 滿洲國의 側에도 말한바와 가치 今後에있어서의 重要產業主義的 基本的類型으로서 豫想되는 所謂地域的重點主義의 經濟를 示唆하는것이 기는하다. 單只 現實問題로서는 此中小商工業의 滿洲國의 經濟的建設의 一環으로서 重要한 影響을 미치게하는것이며 現實的轉業對策의 一手段으로是認되는 것이 現在 我中小商工業轉失業對策으로서 至大한影響을 미치게하는것이다.

그러나 一方滿洲國의 經濟는 今後에 있어서 飛躍的으로 發展하는 現行五個年計劃이 逐年擴大되고있으며 또한 公益交通網도 整備되고있는 現狀에서 ... 이번에 滿洲國에서는 我中小工業의 集團으로 移駐시키어 同國의 經濟와 國策産業에 寄與하도록 하려는것이 緊要할것이다. 此移駐問題는 昨十四年度早春에 實行되어 關係當局과 協議한 結果 內地의 遭遇中小工業者의 一部를 移駐하기로 되어 지난四月中旬에 十九戶 同十九工場의 第一回移駐가 實現되었다. 滿洲國에서 이 移駐를 五個年計劃의 基幹工業으로하는 重要産業인 工作機械工業으로서 活動하기로되었다. 移駐에 當해서는 工場主는 原則으로 設備及從業員과함께 移駐하는 集團的 形式을 取하며 滿洲國에 包括的으로 移駐하는것이며 移駐에 對해서는 어느程度까지 補助하기로 되어있다. 今十五年度에 있어서도 昨年에 引續하여 大體로 二十工場前後의 移駐豫定이며 特히 今年度에 있어서는 工作機械工業에 限하지않고 다시 그 選定範圍를 他의 工業部門에까지 擴大하여 ...

小賣商免許制

以上으로써 我中小商工業의 一般的性格과 本產業構成上에 占하는 地位及그 諸對策을 論하여 왔는데 今後에 있어서의 中小商工業對策의 發展動向及政府에서 現在이에 對하여 考慮하고 있는 것에 關하여 ... 小賣商의 免許制度는 小賣業者의 消極的 發展을 期待하는 것이다. 政府의 施策 ...

產組와의 樹立

... 中小商業者와 產業組合과의 協調 ...

結論

... (完)

新米穀의 配給機構

地方的뿔럭打破

總督府서 一元的統制

新米穀年度(十一月부터 明年十月까지)에있어서의 朝鮮內米穀配給機構에 對하여는 地方的으로 在朝鮮內配給機構는 地方的으로 割據打破를 圖함으로 總督府의 一元統制를 强化할 意圖下에 案을 講究하고있는데 今年의 作況은 現在까지 順調하나 昨年度와 가치 南, 北, 西의 地方的豐凶의 差도 그리 만치 안흘것이라 豫想되고 지방도의 間에도 縮少될것으로 보이는데 稀有의 凶作의 뒤끝이어서 依然生產道와 消費道와의 需給關係는 容易치안흘것으로 ...

(一)平北地方과가치 生產者手中에있는것을 統制하는 生產者의 政策의 樹立이 要求되는데 新年度의 米穀配給은 (二)黃海, 平南과가치 道當局이 一括買上하여 一切를 管理하는 統制와 (三)京畿道와가치 一日商人의 손에있는 米로서 道當局이 管理하는 ...

十五年度肥料配定

米, 麥重點主義!

鰮粕을 朝鮮內에 優先配給方針

◇……尾崎農務課技師歸任談

十五年度(六月부터 來年七月까지) 肥料配定에 對하여 渡東中이던 總督府農務課 尾崎技師는 二十六日歸任하여 如左히 말한다

破安의 朝鮮配定은 昨年의 二十七萬噸에 比하여 若干增加되었다. 昨年度는 旱魃에 依한 作付의 減反結果 五, 六萬噸餘剩이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需要量을 充足하였다. 本年은 若干增加되었으나 結局米麥重點主義를 取하고 其他作物은 어느程度肥料配給을 減少하게 될것이다. 過燐酸, 加里肥料등은 大體前年度와같다

但以上은 机上計畫으로 實際生產肥料에 生產이 計畫대로될는지는 좀더 있어보아야겠다 火力이 弱하여 硫安等이 나빠졌는데 結局今後의 降雨量이 肥料問題에 對하여서도 重大하다 端川의 火力用의 石炭을 優先的으로 配給하고있는데 嘲嘲만한 노릇이다 本年中에 鑛山等을 十萬噸을 供給할 通하면 肥料問題는 大半解決된다 有機肥料에 對하여는 中央과 協議하여 朝鮮에서 配定量을 確保할생각이다 低價로 水產課와 協議하여 朝鮮產의 鰮粕을 優先的으로 朝鮮內에 配給케할것이다

◇一方 施肥에 依한 增産=水田 單位面積當收穫量增加의 方法으로서

滿洲國의 農產物

增產十個年計畫

【新京】政府는 農產物增產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一部門인다 農產物의 增產에 着手한以來 이미 第二年을 經過하였는데 時局의 重大性에 鑑하여 昨秋以來增產對策을 樹立하고 다시本年 農產物增產對策을 樹立하게 되었는데 農產資源開發에 根本的으로 國策을 遂行하고저 從來의 產業部에서 農產部로 改組하고 農產物增產十個年計畫을 樹立하기로 決定하였다 增產對策의 槪要는 如左하다

一、米 小麥緊急增產對策

國內에 있어서의 米及小麥需要國內米及小麥自給을 圖하고저 十六萬國의 緊急增產을 圖하려 ...

一、米穀의 增產對策 ...

預金利率引下

七月一日實施

金組도 一厘五毛引下

既報=朝鮮金融團案의 總會는 二十七日午後一時부터 殖銀集會所에서 開催하고 預金利率引下에 關해서 最後의 協議를 한 結果 如左히 引下率을 決定하고 七月一日부터 實施키로 되었다 이에 關하여 總督府에서는 二十九日 財務局長談話를 發表한다

▲甲種銀行 定期三分五厘(現行三分六厘)

▲乙種銀行 三分九厘(現行四分一厘)

▲貯金 三分六厘(現行三分八厘)

▲信託 三分九厘 長期四分一厘(現行四分二厘 長期四分三厘)

▲金組(非組合員貯金)三分六厘五毛(現三分九厘)

日銀券卅五億突破

今年最高記錄示現

日銀券發行高는 또膨脹되어 二十八日總額高는 前日보다 二千八百四十三萬一千圓이나 激增되어 三十五億二千五百十七萬圓을 示現하였다. 지금까지의 最高記錄인 四月末日發行高二十四億六千萬圓을 上廻하여 今年中最高記錄을 更新하는 大膨脹이였다

鮮銀券은 繼續收縮되어 前日보다 八十三萬八千三百二十九圓減인 四億三千九百十二萬四千八百三十九圓으로 收縮되었다

鰮粕販賣高

油肥聯調査 六月十一日부터 二十日까지의 鰮搾粕의 賣約狀況은 總販賣高 二萬八百七十二瓩로 그內容은 如左하다 (單位瓩)

	六月中旬	累計
咸北	三、三〇二	九、〇三七
咸南	一〇、六七四	四、三七六
江原	六六、六九	一六、二三四
慶北	一〇、七二五	三六、一七二
慶南	—	六、八〇一
合計	二〇、八七二	一〇〇、四七〇

四弗臺突破

英米爲替爆發

오래동안 三弗臺에서 低迷되던 英米爲替市勢는 二十八日에 入電한 外電에 依하면 前月보다 또 二十五仙이나 昂騰되어 오래간만에 四弗臺를 恢復하여 四弗〇仙四分一이 되었다

鮮米協會開店休業

鮮米協會에서는 既報대로 二十六日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協議한 結果 本年度의 方針으로서 鮮米의 內地移出이 杜絶狀態에 있는 現在 朝鮮米의 販賣斡旋을 主로하는 同會는 全혀 機能停止의 狀態에 있고 米穀의 調査研究機關으로서 存在하는데 不過하여 마니 苦境에 있는바 本年度移出米의 透視도서지안코 또內地의 朝鮮米配給機構의 變革問題가 論議되고있는 際에 그 去就에 對하여 慎重히 硏究할 必要가 있서 結局新機構問題는 그대로두고 前年度의 方針을 踏襲하여 犧牲的奉仕를 하기로 되었다

配合飼料配定

利潤率規定

朝畜懇談會서 協議

朝鮮畜産株式會社에서는 去二十七日에 全鮮十六個特約店과 京城大邸、平壤와 釜山 松本米穀을 會集시켜 懇談會를 열고 主로 配合飼料에 各地方別要求數量과 特約店에 있어서의 利得과利潤率에 對하여 協議하였는데 地方的需要에 對하여는 되도록 圓滑한 配給을 期키로 하여 公平한 配定을 企圖할것이며 特約店의 利潤率에 있어서는 大略五分乃至八分程度로 規定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特히 注目되는 것은 各其特約店에 있어서는 朝畜에서 바든 配定飼料以外에 其他 ...

礦貨奔騰

【紐育二十七日發商通】紐育金屬市場에있어서의 自由錫은 二十七日英國의 爲替管理令을 發表한 後이는 英蘭印에서 爲替管理實施되여 和平不안定의 傾向이 보이는데 依하여 錫相場은 前日에 比하면 十五仙이나 奔騰되고 아직 一般의 三弗九十仙으로 奔騰하고 있다

滿拓社債發行

【新京二十七日發國通】滿拓本年度社債發行計畫은 一億二千萬圓으로 日滿區分은 國內四千萬圓, 日本八千萬圓으로 決定하고 來二十二日第一回發行코자 準備하고 資本團과 協議中이다

朝金驛異動

卄四日附發令 調査課長 參事 吉川壽弘 依願免職

運輸同盟會

重大決議實行

一日實行委員會召集

朝鮮運輸同盟會에서는 二十七日 京城에서 實行委員會를 開催하고 重大決議를 하고 來七月一日午後三時 實行委員會를 召集中이다

國産自動車

國產自動車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本社에서 第一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山下專務議長下에

一、第一期諸決算案承認件(可決)

一、同上利益金處分件(可決)

一、取締役一名、補缺選擧件(後藤博氏選任)

一、前取締役 淺野太三郎氏 遺族에게 弔慰金 贈呈의件(役員會一任)

一、定款變更의件(可決)

利益金處分은如左하다(單位圓)

▲當期利益金 一〇一、八〇〇 ▲前期繰越金 ... ▲法定積立金 ... ▲役員賞與金 ... ▲株主配當金 ... ▲後期繰越金 ...

朝鮮信託

朝鮮信託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 第十五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第十五期諸決算案承認件

一、同上利益金處分에 關한件

을 附議可決한바 利益金處分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純益金 ... ▲前期繰越金 ... ▲合計 ... ▲法定積立金 ... ▲使用人退職手當 ... ▲役員賞與金 ... ▲株主配當(年九分) ... ▲後期繰越金 ...

殖銀

殖銀發行高는 二十八日 ... 取締役安井清氏 七月四日로 任期滿了에 對한 後任選任件(安井氏重任)

利益金處分如左하다(單位圓)

▲當期純益金 ... ▲前期繰越金 ... ▲合計 ... ▲法定積立金 ... ▲固定資產償却 ... ▲特別積立金 ... ▲退職給與基金 ... ▲役員賞與金 ... ▲株主配當(年八分) ... ▲後期繰越金 ...

會社總會一束

高周波

日本高周波重工業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府民館에서 開催하고 一、當期諸決算案承認과 利益金處分案 ...

十字鉄

▼…田村朝鮮商議理事就任披露宴은 近來에 보기드믄明朗, 愉快한자리었다.

▼…먼저 人見副頭, 一席의政治論을 辭頭, 日『石炭, 木炭問題도 連日闘爭을 열기까지한것은 政治的 貧困所致이다 이事業者와 充分協力하더면 이런일이 어찌있었겠는가』고 大砲한방을 노하다.

▼…『統制經濟는 結局官民一致協力이 아니면 所期의目的을 達키어렵다』고 朝鮮商議의 任務는 責且大함을 論.

▼…『이때에있서 田村君가든有爲의人을 마지한것은 多幸이리』고 田村氏의紹介의 論說이 安壯.

▼…송 支配는 했지만 田村氏를 치켜올리는것은 如此.

▼…田村氏일어서서『나는스로모른다. 그러나 熱心히 일하겠다. 十八年官界生活을 淸算하고 店員이 된 氣分으로 모――넘을 벗고일하겠다』고 決意披瀝, 寡言實行의 人인듯.

▼…林殖銀頭取祝辭日『朝鮮商議를 巨物主義로 機能을 擴充한다니 果然人見氏의 會頭就任으로 一應, 이번 田村理事決定으로再應, 商議新生의 準備는 完成된것.

▼…『小林社長의 謙讓의 美德, 田村氏의 意氣로 氏의就任을 보게된것은 至極慶賀하다, 猷揮네지말고 꾸준히 發展잇는 朝鮮을 爲하여서 일하라』고 例의 名句調로 기를올리듯 演壇을 蹈躪케하였다.

▼…客席의 구흥이에서 今곤겨러『너무추어노면 일하기어렵겠지』

▼…뒤바처 小林 鑛業社長日『내가 애써서 불러온 사람을 내노키는 실치만 朝鮮을 爲하여 여러분에게 바치니 田村君을 支援하라』고 懇切히 부탁.

▼…『田村君은 朝鮮을 아직알지못해 源備가없서 就任했스니 寬大히보아달라』고 쇤을 다해말하기 마치 시집보내는 딸을 사위에게부탁하듯, 참에 노치찾아하는듯.

▼…어만큼 和氣있고 兩重하고 友情으로 싸힌자리는 참치못듯것, 好漢 田村 博士의 明日을 期하자.

京城商議議員總會

京城商議에서는 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 同所會議室에서 議員總會를 開催하고

一、昭和十四年度 事業報告及決算案認定의件

一、短期店員養成所開設의件

一、京城商工組合聯合會 設立費及 京城觀光協會의 補助金의件

을 附議하고 各原案대로 決定하였다 또 各團體에의 補助金額은 如左하다 (單位圓)

▲京城商工組合聯合會 四、〇〇〇

▲朝鮮貿易協會 七〇〇

▲京城觀光協會 一、〇〇〇

總計 一〇、〇〇〇

調合肥料

移入안된다

明年度에 있어서의 移入調合肥料는 中央에 懇請한 結果 昨年度보다 約二萬二千噸을 增加한 九萬六千噸으로 決定되어 ... 去七、八月부터 내지에서 이미 移入되지안키로 되었다 ...

今日財界 廿八日

◆米 (京城, 公定價) 玄米 ... 七分搗白米 ...

◆麥 大麥 ... 裸麥 ...

◆綿 ...

苹果暴騰

一箱二十圓臺

果物=苹果는 全然品不足으로 ...

海產物

...

海外經濟 廿七日

...

銀行券 廿七日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金利手形交換

▲東京 ...

▲大阪 ...

▲京城 ...

株式 浮動

小戾後에

前場少堅

今朝는 東新四高에 百二十八圓五, 鐘新百六十圓, 鐘新一圓高인 十七圓五의 押込徵收後 五十八圓八에 寄付된後 小浮動을 보하다가 結局 東新百二十八圓五, 鐘新百一圓에 大引

後場浮動

後場은 東新一高인 百二十八圓六, 鐘新百六十圓一, 鐘新四低인 百圓六에 寄付後 傍觀되어 結局 東新百二十八圓三, 鐘新二十九圓六에 浮動大引

人氣一日安定

昨日後場에는 鐘紡, 鐘新船舶株等中心으로 深落을演하여 懷淚分을띠고 鐘紡과가튼것은 百五十七圓臺(東京)의 低價를示하더니 今朝에이르러서는 人氣도 거의 落着되고 利喰物도 反撥을示하여 鐘紡, 鐘新이 모두 回復하기는 하였스나 伸力은 殆無하였다 歐戰의 餘波를 받고 ...

今日의市勢 二十八日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現物軟調

日產四圓低

京城物價 廿八日

◆白米 一石 (單位錢)

◆雜穀 (小賣公定價) ...

◆絹織物 ...

◆本絹物 (單位反, 錢)

◆京城燃料炭 ...

◆石炭 ...

◆木材 ...

生糸

鰯油粕·麥粉

對外爲替

英 百圓에 ...

米 百圓에 ...

株式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取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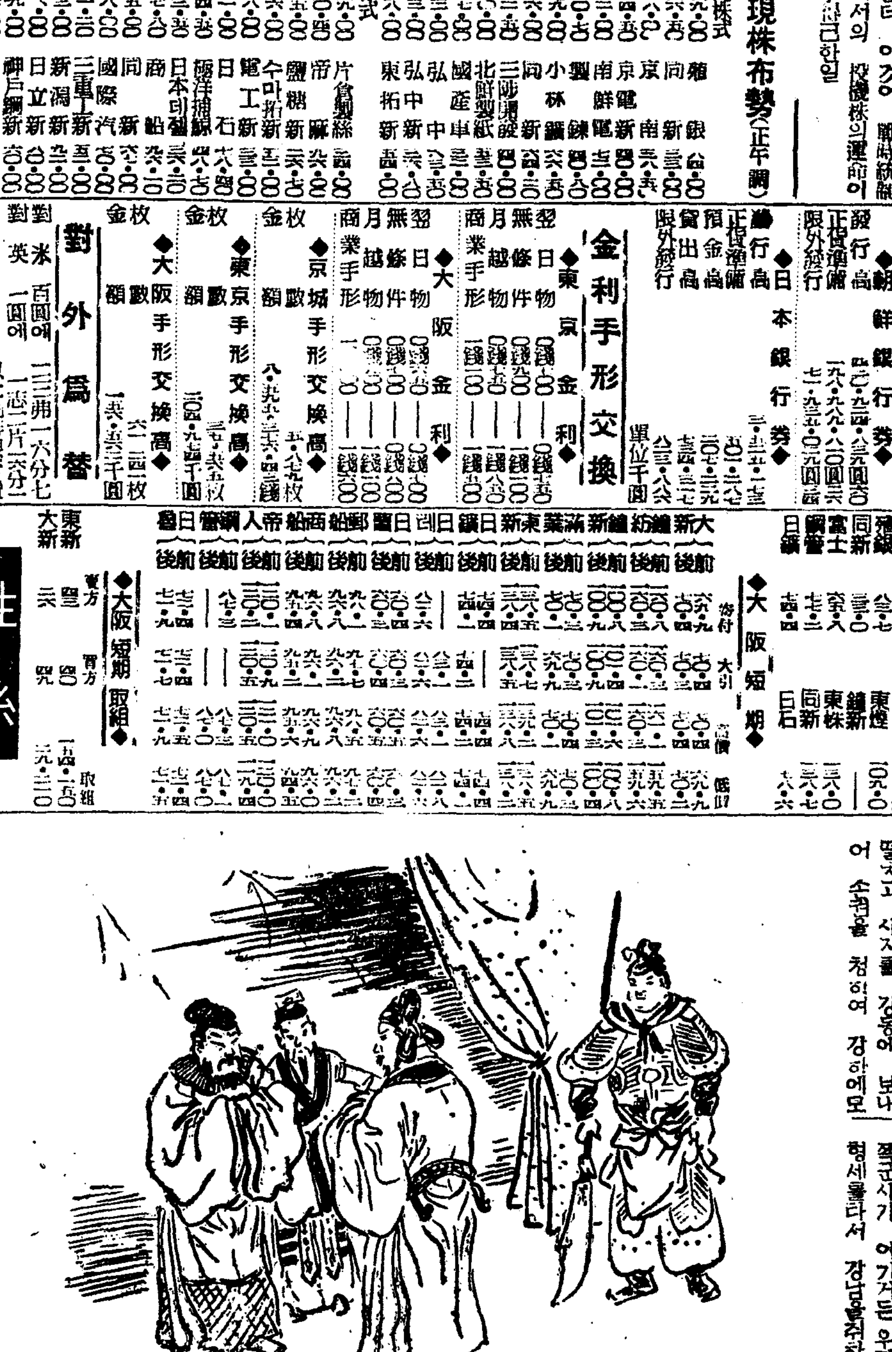
◆東京短期取組◆

△東京國債

三國志 【239】

韓龍雲 譯 熊超 畫

孔明의 遊說江東(一)



조조가 운장이 군사를이끌고 세지도조차 길목만는것을 보고 복병이있는가 의심하여 감히 먼저 강동을 배삭가 두려하여 군사를이끌고 방을도아 강릉으로 갈새 형주의 치중 등의 와 별가 유선이 여며 양양일을 알고 농히 조조의 군사를 당치못할것을 알고 마침내 형주의 군사와 백성을 이끌고 성에나가 항복하였다 조조가 성에들어가 백성을 위모하고 한숭을노하 대홍려(大鴻臚)를 삼고 그나머지 여러관원은 각각 상을주었다.

조조가 여러장수와 상의하되 『이제 유비가 강하로 갓스니 만일 동오를 연결하면 형세가 커질것이라 무슨계교로파하리오』

순유가 말하되 『우리가 군사의 위엄을 크게 떨치고 사자를 강동에 보내어 손권을 청하여 강하에모

여 사냥하게하여 함께 유비를 사로잡고 형수의 땅을나누어 영원히 조케지낼 맹세를 매지면 손권이 반드시 놀내고 의심하여 항복할지라 그러면 우리의 일을 이루리라』

조조가 그계교를 조차서 한편으로 격서를 발하여 사자를 동오에 보내고 한편으로 수륙군 팔십삼만을 발하여 백만이라 일컷고 물과 뭍으로 아울러 나갈새 배와 말이 쌍으로 행하여 강언덕을 조차갈새 서으로 형협(荊陜)을 연하고 동으로 기황(蘄黃)을 접하여 진영이 삼백여리를 연하였다.

강동의 손권이 군사를 서상군에 둔쳣더니 조조의 대군이 양양에이르러 유종이 어미 항복하고 또 방을 도아 길을 배나려 강릉을 취한다는말을듯고 여러모사를 모아서 어거할계교를 상의할새 노숙이 말하

되 『형주는 나라로더부러 연접하며 강산이 험하고 백성이부하니 우리가 만일 웅거하여 두면 실로 제왕의터가 될지라 이제 유표가 새로 망하고 유비가 패하였스니 청컨대 내가 명을바다 강하에가서 유표를 조상하고 유비를 달래어 하여금 유표의 여러장수와 마음을, 가치하여 한가지로 조조를 파하게하여 유비가 만일 기쁘게 조치면 큰 일을 이루리라』

손권이 그말을조차서 곳 노숙으로 하여금 예물을가지고 강하에 가서 조상하게 하였다.

노숙이 강하에이르러 공명과 현덕이 강하에이르러 계교를 의논할새 공

명이 말하되 『조조의 형세가 심히커서 어려우니 동오의 손권에게로 가서 응원을어더 남북으로 하여금 상지하게하고 우리는 그중에서 이를취하면 어찌 옳지아니하리오』

현덕이 말하되 『강동은 인물이 극히만하여 반도시 원대한 계교가 잇슬것 어니 어찌집기어 서로 용납하리오』

공명이 웃스며 말하되 『이제 조조가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범처럼 강하에 웅거하였스니 강동에서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허실을 탐지하지 아니하리오 만일 사람이 오거든 내가 한못의 바람을 빌려서 강동에가서 달래어 남북 두곳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하되 만일 남쪽 군사가 이기거든 함께 조조를 베이고 형주를 취하며 북쪽군사가 이기거든 우리는 그 형세를따서 강남을취하면 조

(四) 昭和十五年六月二十九日 朝鮮日報